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살고 있는 동네를
살고 싶은 동네로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일시	2021.12.16.(목)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담당자	과장 최병완, 서기관 박종현 (044-200-2646, 2907)

살고 싶은 동네!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SOC! 2년의 노력, 우리동네 생활SOC 일석삼조의 효과!

- '생활SOC 3개년 계획('20~'22.)' 3년간 **33조원** 투자, 주요시설 확충 목표 **97%** 달성
- △(고용증대)생활SOC 조성단계에서 **일자리 13만개** 창출 △(균형발전) 구도심, 농산어촌 등 활력 제고 위해 도시재생 및 농산어촌 개발 등 879곳 추진, △(삶의 질 개선) **도서관**(12분→9.4분)·**체육관**(13분→9.4분) 확충하여 접근성 제고, **10분**이면 도착

- 정부는 12월 16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0차 생활SOC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2년 생활SOC 추진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 제10차 생활SOC 정책협의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는 별도 배포

- 이 날 회의에서는 「생활SOC 3개년계획('20~'22)」 마지막 해의 시행 계획을 논의하면서 지난 2년동안 범정부적으로 해왔던 노력의 주요 성과들을 짚어보았습니다.

< 가. 과감한 투자와 획기적 시설확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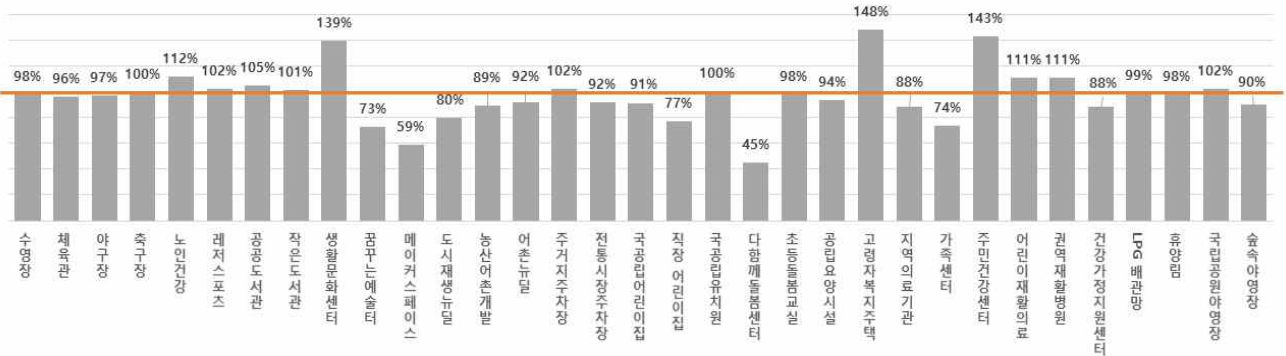
- 정부는 '19년 4월 「생활SOC 3개년계획('20~'22)」 수립 이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3년간 총 33조원*의 국비(당초 계획 대비 10% 증가)를 대폭 투자하였습니다.

* '20년 10.9조원 + '21년 11조원 + '22년 11.0조원

- 이에 따라 '21년 말 현재, 33종의 주요 시설이 3개년계획 목표 대비 평균 97% 수준으로 차질 없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 특히, 공공도서관(‘21년 누계 1,259개), 생활문화센터(416개), 주거지 주차장(1.13만면), 주민건강센터(157개) 등 **12종 시설은 착수 기준 ‘22년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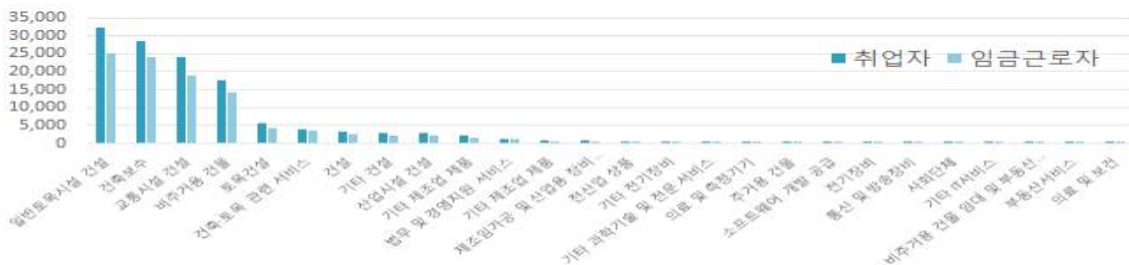
< 33종 주요시설 추진현황(’22 계획 대비, 착수기준) >



< 나. 일자리창출 및 국가균형발전 뒷받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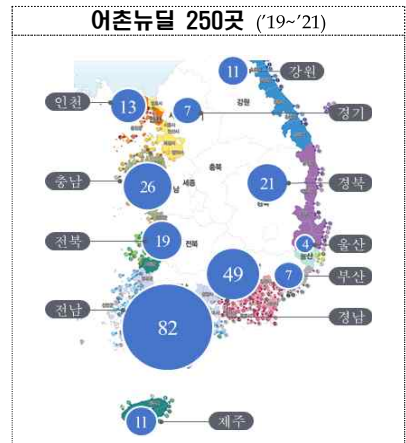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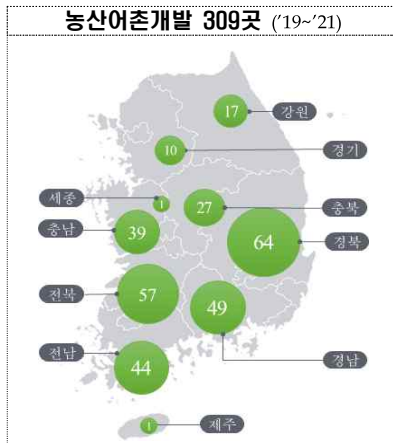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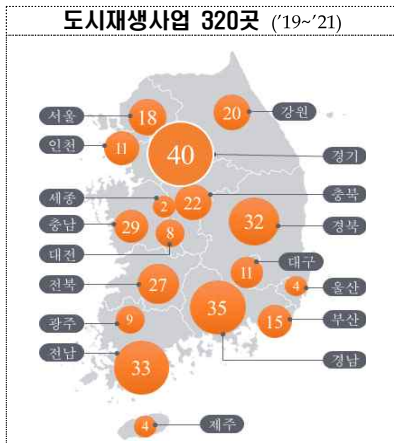
- 지난 2년 동안, 생활SOC 조성단계에서 **13만개**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향후 본격적인 운영단계에 접어들면,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분야별 일자리 유발효과 (명)> (’21. 건축공간연구 추계)



- 또한, **舊도심, 농산어촌 등 전국 방방곡곡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의 고른 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문화·복지복합시설을 적극 확충*하여 **구도심 정주여건을 개선**하였고
 - * 도시재생사업지(총 401곳)와 연계된 생활SOC 사업 총 1,150개 착수
- 농촌형 거점시설 조성(다가치센터 208개), 취약지역 개선(223곳), 집 고쳐주기(1,788호) 등 **농산어촌의 지역활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아울러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 필수인프라를 개선하였으며,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현재 57곳('22. 목표 300곳)이 완료되었습니다.



< 다.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 >

- 「생활SOC 3개년계획('20~'22)」에 따른 차질없는 시설 확충으로 국민들의 유익한 일상을 돕고 든든한 삶터를 폭넓게 조성하였습니다.
- 국민들의 여가활력 증진을 위한 공공도서관(계획 수립 시 대비 +217개), 생활문화센터(+ 275개), 체육관(+ 385개), 게이트볼장(+ 312개) 등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 특히, 공공체육관('18년. 13분→'21. 9.4분), 공공도서관(12분→9.4분)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분 이내 접근 가능한 수준으로, 접근성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 보육·돌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초등돌봄(계획 수립 시 대비 + 2,310실), 다함께돌봄(+ 801개), 고령자 복지주택(+ 3,370여호), 주민건강센터(+ 91개) 등 보육·복지 인프라를 확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공보육율이 높아졌고(계획 수립 시 대비 + 6.7%p), 온종일돌봄 수혜대상도 증가(+ 7.9만명) 하였습니다.



- 국민의 안전·안심을 위하여 위험도로개선(계획 수립 시 대비 + 159곳), 풍수해생활권 정비(+ 35곳),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49ha) 등 취약부문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 특히,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회전교차로 등을 설치했고, 환경 개선 이후 사고가 31.5% 감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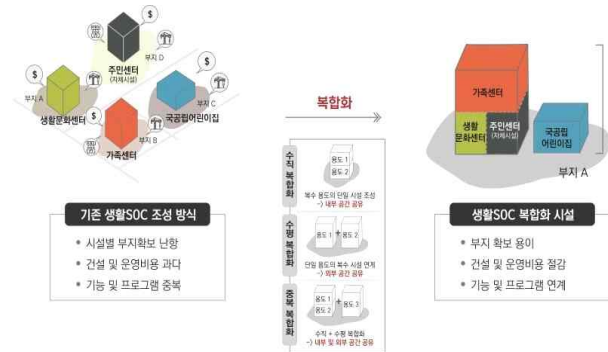


□ 아울러, 생활SOC 시설의 복합화 추진을 통해 지역의 허브시설로서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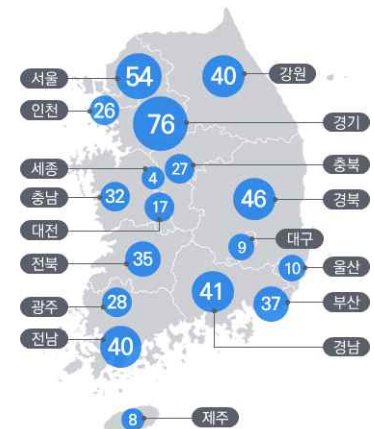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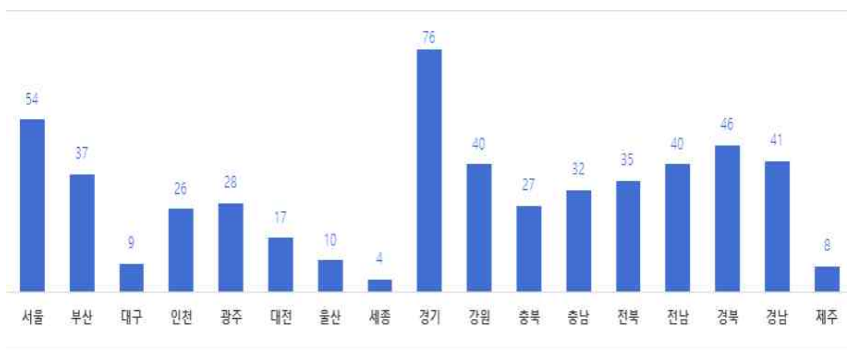
○ 3년간('20~'22) 복합화 시설 총 530건을 선정하여 전국 228개 시군구 중 202개(88.6%)에 1곳 이상 복합화 시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복합화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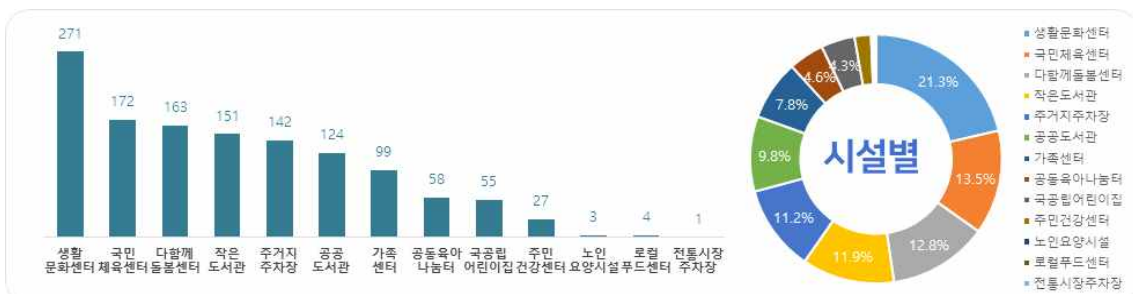
- 복수(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



<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역별 현황(3년 누적) >



< 생활SOC 복합화사업 시설별 현황(3년 누적) >



○ 국민 대부분은 복합화 시설 이용에 만족하며, 시설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시설 이용자 80.5% 만족, 일반국민 79.1% 확대 희망('21.8, 건축공간연구)

< 라. 국민과 전문가의 평가 >

- '21년 추진단·건축공간연구원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책 수요자',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 일반국민은 대체로 긍정적 기대를 갖고 생활속에서 좋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삶의 질 제고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 * 생활SOC 정책으로 삶의 질 제고가 기대된다 : 66.1% ('21.8, 전국 1,000명)
 - 지자체는 주민편의, 부지확보 용이, 국비 확보, 운영비 절감 등의 장점을 강조하며 복합화사업에 대다수가 높은 호응을 보였습니다.
 - * 복합화사업 등 정책효과에 긍정적 : 93.1% ('21.7, 228개 지자체 233명)
(복합화의 장점 : 주민편의 > 부지확보 용이 > 국비 확보 > 운영비 절감 순)
 - 또한, 전문가들도 사업방식 개선과 과감한 투자로 일궈낸 값진 성과였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40명 설문)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국민들이 그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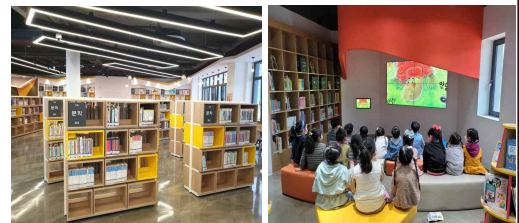


【 복합화 : 경기 화성 서연이음터 】

- (기간) '19.4~'21.2 착·준공 → '21.10월 개관
- (시설) 생활문화센터 + 공공도서관 + 국공립 어린이집
- (현장 반응) 마을·학교·주민을 잇는 **마을공동체 형성**, 가족공방·조향·패브릭 등 주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큰 호응

【 여가 활력 : 충남 아산 꿈샘어린이청소년 도서관 】

- (기간) '19.10~'21.1 착·준공 → '21.1월 개관
- (시설) 영유아·어린이·청소년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등
* 제로에너지 및 패시브 건축 + Recycling(폐유리 재사용 마감재)도입한 국내 최초 공공도서관
- (현장 반응)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 마련, 지역 주민 독서량 증가('19년比 대출권수 292%↑), 이용자 만족도 98.2%('21) 등 큰 호응



【 생애 돌봄 : 경기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

- (기간) '18.8월~지속추진 → 17호점까지 개소('21.10월)
- (시설) 아파트 단지, 상가, 마을 유휴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여 돌봄공간 조성
- (현장 반응) 지역 주민의 접근성 높은 곳에 아동 돌봄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 만족도 및 효율성 제고

【 안전 안심 : 경기 하남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

- (기간) '20.5~12 하남유치원 일원 교통환경 개선
- (시설) 노상주차장 폐지, 일방통행 전환, 과속·주정차 단속장비 등 안전시설 설치, 회전교차로로 변경 등
- (현장 반응) 어린이시설 3개소 밀집지역임에도 안전 통학로가 없고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해 불안했는데, 시설 개선 후 **안심하고 걸어다닐 수 있게 됨**





【 도시재생 : 경기 하남시 생활문화센터 '하다' 】

- (기간) '20.7~11월 착·준공 → '20.12월 개소
 - (시설) 생활문화센터 (모임방, 전시실, 다목적홀 등)
 - (현장 반응) 원도심 도시재생과 연계한 근거리 주민 참여 문화시설, 이용 낮은 지하보도 활용 범죄 예방
- * 문화체험, 취미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매우만족' 87%



【 어촌뉴딜 : 전남 만재도 여객접안시설 등 】

- (기간) '19~'21.3월 조성 → '21.4월 준공식 개최
- (시설) 여객접안시설(40m), 경사식선착장(53m), 어구보관창고, 경관 산책길 등
- (현장 반응) 주민거주 이래(320년만) 첫 여객선접안 시설 조성으로 만재도 가는 시간 절반 단축, 원활한 주민 생필품 공급 및 관광 활성화 등 효과 톡톡



【 예술교육 : 경기 성남 꿈꾸는 예술터 】

- (기간) '19.12~'20.9월 조성 → '20.12월 개소
- (시설) 손기술랩, 미디어랩, R&D라운지, 소리랩 등
- (현장 반응) 구도심 폐교를 활용한 창의·융합형 문화예술 공간으로, 수요자 요구에 기반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해 이용자 호평



【 창업준비 : 경남 거제 청년센터 '이룸' 】

- (기간) '19.8~'20.5월 착·준공 → '20.7월 개소
- (시설) 토론공간, 일자리상담실, VR가상면접체험실, 세미나실, 청춘쉼터 등
- (현장 반응) 청년 활동가와 지역사회 간의 네트워크 강화, 청년들의 자립 및 취·창업 기회 확대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비전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

목표

'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
- 문화·체육, 보건의료, 육아·노인돌봄, 안전 등 -

3대 전략 / 8대 핵심 과제

1. (여가 활력) 활기차고 품격있는 삶터

- ① 활기찬 삶을 위한 공공체육인프라 확충
(국민체육센터, 실외체육시설)
- ② 품격있는 삶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도서관, 생활문화공간)
- ③ 골고루 행복한 삶터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 LPG배관망, 주차장)

2. (생애 돌봄)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 ④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조성
(어린이집, 유치원, 온종일돌봄체계)
- ⑤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의료시설 확충
(지역책임의료기관, 주민건강센터,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건강가정지원센터)
- ⑥ 따뜻하게 더불어 살기 위한 취약계층 돌봄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고령자복지주택)

3. (안전·안심)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 ⑦ 재난·재해·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삶터 구축
(교통안전, 지하매설물안전, 화재 및 재난안전)
- ⑧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가 상존하는 삶터 마련
(생활환경(미세먼지), 휴양림, 야영장, 도시공원)

추진 방식 혁신
(제도개선)

기획(Plan)

복합화 촉진

유인대책
(보조율 조정)

조성(Do)

추진방식
다변화
(학교시설·부지,
공공시설사업
연계 등)

운영(See)

지속가능 운영

주민참여, 쌍방향 플랫폼 구축